

100일 남은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막바지 총력전

정부·20여 기관·16개 시도지사 여수서 회합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100일 앞(2월1일)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전남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여수시가 성공 개최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도 성공 개최의 관건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권도영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역대 최고 명품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경찰, 경찰·세관·출입국관리소 등 2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숙박, 관광대책, 안전점검 등 전반적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국제관·주제관·디오 등 박람회장 조성 현황을 둘러볼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1일 오전 박람회장에서 정부 부처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람회 성공 다짐대회와 입장권 발매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16개 시·도지사들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부터 박람회장에서 '제 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연다. 박준영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수시도 박람회조직위원회의 '관람객 수요예측 조사' 결과에 따라 박람회 기간 해외관광객이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 '해외관광객 맞춤형 손님맞이 보고회'를 갖고 관광숙박대책과 환영행사, 소품·지역문화체험 행사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전 국민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정 담양 겨울철새들의 비상

26일 담양군 대덕면 운암저수지를 찾은 원앙 등 겨울 철새들이 무리지어 비상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지속된 한파로 저수지 수면에 흰 눈이 쌓인 채 공공 얼어붙어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적자자치' 한계상황

13개 시군 재정 엉망...도본청 채무비율 전국평균 3배

행안부 '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일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남에만 재정 적자를 기록한 자치단체가 13곳에 이르는데, 쓸 돈이 부족하다보니 없는 형편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 비율도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의 경비 절감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남을 비롯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에 의뢰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분야로 나눠 20개 매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남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13개 자치단체(전남도·목포·여수·광양·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완도·진도)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해당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재정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빛도 많은데다, 미래 갚아야 할 채무 상황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도 분청의 경우 지난 2009년(49.48%)에 견줘 지난 2010년 지방채무잔액지수(항후 상황 의무가 따르는 채무액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42.10%)가 다소 나아졌지만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2010년 7.80%로 2009년(5.0%)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2.96%)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연차별 채무경감방안 등 채무관리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도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무리한 사업추진을 통제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어려운 살림에도 경비를 절감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표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이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비해 부진해 의회 국외여비나 의정운영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광주지역의 경우 북구·남구·광산구는 경상수지비율(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지방세수 등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낮은 자치단체로 분류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불안과 혼돈의 시대 마음의 길잡이가 될 광주일보의 '종교칼럼'이 2012년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찾아갑니다.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나다 순>



김성근 교수 윤빈호 신부 이원재 목사 일담 스님

◇김성근(원불교 풍암교당 교무)
▲원광대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졸업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풍암교당 주임교무 ▲학교법인 영산성지학원 상임이사

◇윤빈호(영암삼호성당 주임 신부)
▲독일 성아우구스티나대학 종교학 박사 ▲곡성본당 신부

◇이원재(무등교회 목사)
▲건국대·총신대 졸업, 캘리포니아대 박사과정 수료 ▲국제기대책광주·전남지부 이사장 ▲광주시청예산위원

◇일담(백련사 총무스님)
▲동국대 선학과 졸업 ▲해의 불교 포교지 '클리어 마인드' 편집장 ▲만경영농조합 이사장

光州日報社

현대차 여수박람회 입장권 20만장 구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구매에 열정이 가득한 현대차그룹이 20만장을 구매키로 해 '가품 속의 단비'가 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김근수 조직위 사무총장과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박람회 입장권 20만장을

구매하는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12일 박람회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입장권 구매율은 목표 판매량 800만장의 0.65%(5만2000장)에 불과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그룹의 구매는 삼성그룹 등 다른 대기업과 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예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흘째 조직위 입장권구매는 "입장권구매를 신선했던 대기업, 일반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일부에선 대량구매 의사도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화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GEO 5 지구환경전망세계 정부간 회의(GEO-5)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GEO-5 Summary for Policy Makers

UNEP GLOBAL ENVIRONMENT OUTLOOK

- ▶ 전 세계 90여개국 정부대표단과 UNEP 등 환경전문가 130여명 참여
- ▶ 총회, 대륙별 분과회의 : 지구촌 환경 가이드라인 지구환경전망 보고서(GEO-5) 채택
- ▶ 특별세션 : 광주시·UNEP 공동개발 도시청정개발체제(도시CDM) 비전 공유

● 일시 2012.1.29~1.31 (3일간)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 유엔환경계획 ● 주관 환경부 광주광역시